

<지난주 말씀&서론>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25년 구정 명절도 지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를 바꾸는 한 해가 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내 망대가 지난 날에는 사탄의 망대였다면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길 바랍니다. 이것이 2025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나의 여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가야 할 나의 여정을 찾길 바랍니다.

▶세번째로 전도를 통해 나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나만 할 수 있는,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면 안됩니다. 나를 바꾸고 나를 찾고 나를 세우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과 사실과 진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어도 되는 영적 사실을 알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지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적 감각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에서는 답을 찾고, 갈등이 왔을 때는 갱신할 줄 알고, 위기가 왔을 때는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장성한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이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안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속죄제물을 드리고 자기의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자가 없을 때는 살아서 나올 수 있지만 하자가 있을 때는 죽기 때문에 방울을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기 때문에 줄을 달아서 끌어내는, 이런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영혼의 달으로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 예수님이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입

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혼의 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이라는 것은 선두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위한 대제사장이 영혼의 달으로 휘장 안에 가장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한 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달이 예수구나. 이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우리가 영원히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민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본론>

1.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히6:1-2)

온전한 그리스도,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다 말고 행위로 빠지고 유대교로 빠지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빠집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한다, 세례받아야 한다, 안수받아야 한다, 부활해야 한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런 행위적인 걸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붙잡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완전한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걸 붙잡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히6:4-6)

타락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다인데,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걸 반복을 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박는 꼴이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두 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한번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영경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히6:7-8)

구원받은 자가 삶에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영경귀를 내면 불사름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면 멸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됩니다.

2.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모델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히6:9)

복음을 위해서 받은 구원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로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다, 여기에 확신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6:10)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살리는 분이고 그 약속을 단 한번도 잊은 적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히6:11-12)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약속대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증인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동일하게 부지런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는 소망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델 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모델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3.하나님이 맹세하신 영혼의 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히6: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히6:14-15)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하신 맹세입니다. 결국 이 맹세대로 아브라함의 씨앗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히6:16)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최후 수단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최후에 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히6:17)

하나님은 당신의 맹세를 말씀 성취로 보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씀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보증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6:18-19)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가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두가지가 뭘까요? 우리가 영혼의 닻이신 예수를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셨느니라(히6:20)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닻이 있어야 배는 방향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선두가 되신 예수를 영혼의 닻으로 삼아서 예수를 따라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확증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대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이 닻이 얼마나 견고한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휘장 안에 한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결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영혼의 닻입니다. 닻은 선구자요 선두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두주자로 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가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휘장을 십자가 사건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은 자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 닻은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 닻을 따라 휘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